

## 법과대학을 부활시키자

나에게도 대학시절 공부하기 싫거나 공부가 잘 안될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고시계에 실린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꿈을 키우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그 고시계에서 시론을 부탁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요즘 청년들이 꿈을 꾸기 힘든 시절이라고들 걱정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상아탑이라고도 불리는 대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과목이 문과쪽에 서는 신학(神學)과 법학(法學)이다. 그런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과와 법과대학이 한국대학에서 사라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로스쿨 정착하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바로 그 법학과와 다를 것이 뭐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로스쿨이 생기지 않은 대학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법과대학과 법학과 때문에 사실 사라졌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많은 대학에서 '법학과'는 없어졌고, 정체도 애매한 '자유전공학부'라는 것이 법학과의 구실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처음에는 법학과나 로스쿨이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로스쿨은 대학원 단계이니 좀더 멋진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아는 로스쿨 선생들도 요즘은 다들 걱정한다.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법학과에 들어가서 배웠던 정의니, 헌법정신이니, 법치주의니, 인과관계론이니 그 당시는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 너무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걱정도 했던 그 법학의 쟁점을 로스쿨에서는 가르칠 시간도, 배울 시간도, 배우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 박 형 언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다윈 대표변호사
- (現)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



물론 따지면 로스쿨은 직업학교이니 그런 것을 배워서도 안될지도 모른다. 예전에 법과대학이 고시학원으로 전락된다고 걱정하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위한 학원이 되고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우리 법조계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하나더 등장한 예비시험 실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뜬금없기도 한 법과대학을 부활하자는 나의 원론적인 주장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양쪽에서 공격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리 단서를 좀 달려고 한다. 나의 주장은 법조인 양성에 대한 어느 입장(로스쿨 지지론자, 사시존치론자, 예비시험 채택론자)과도 무관하고,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의 시스템이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귀결된다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학, 학부에 법과대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원론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유럽의 법학의 전통을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여 해방이후 그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민관(民官)할 것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향후의 우리의 법학교육제도로서 로스쿨을 채택하면서 “학부에서 법학을 없애고, 대학원 단계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미국식 교육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법학이라는 것이 로스쿨을 가기 위한 다양한 전공의 하나로 채택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전혀 고민도 없이 정치적인 타협에 의하여 오

늘의 애매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당연한 후폭풍으로 로스쿨이 안정되어야 하는 시점인 지금에 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로스쿨을 보완하는 예비시험을 만들자”는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학생도 힘들고, 교수도 힘들고, 청년변호사들은 서로 처지에 따라 더 힘들고, 이들을 뽑아야하는 검찰, 법원, 변호사협회도 힘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런 힘든 시점에 내가 논쟁을 하나 더 보태자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주장이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 학구적인 주장 또는 “근원적인 논의 또는 고민”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저 로스쿨을 가기위한 학부로 ‘영문과’나 ‘자유전공학부’가 아닌 ‘법학과’를 나오는 방식의 유용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예비시험이나 사시 존치를 위해서도 법과대학이 없어진 세칭 좋은 대학에 법학과를 만드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로스쿨 숫자를 대폭 확대하여 흔하디 흔한 것이 변호사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면 법학과를 학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부에서 경영학과 나온 사람과 경쟁적으로 배출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까놓고 이야기해 로스쿨이 안정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실패한 제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배수의 진을 칠 것이 아니라 예전 제도인 법학과나 법과대학을 살려놓고 로스쿨 제도를 실험해 봐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이 나의 주장이 공감대만 형성하면 금상첨화인 것은 방법도 간단하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만 삭제하면 된다. 이 시론을 읽고 우리사회에, 아니면 교육계라도 조그만 논쟁이 일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조용할까 걱정이다.